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98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5년 8월

석사학위논문

# 남녀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과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이 윤 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남녀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과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The associations between gender-stereotypes and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among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2015년 8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이 윤 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남녀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과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지도교수 한 미 아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4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이 윤 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이윤경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박 종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류 소 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한 미 아 (인)

2015년 6월

##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목 차

표목차 ····· iii
ABSTRACT ····· iv

I. 서론 ····· 1

II. 연구방법 ····· 3
A.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 3
B. 조사변수 ····· 4
1. 일반적 특성 ····· 4
2. 건강행태 ····· 4
3. 학교관련 특성 ····· 4
4. 성 고정관념 ····· 4
5. 자기효능감 ····· 5
6. 학업 스트레스 ····· 5
7. 취업 스트레스 ····· 6
C. 분석방법 ····· 7

III. 연구 결과 ····· 8
A. 일반적 특성 분포 ····· 8
B. 건강행태 ····· 10
C. 학교관련 특성 ····· 1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D. 성 고정관념, 자기효능감,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정도 ····· 13
E.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 14
F. 건강행태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 16
G.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 17
H. 성 고정관념, 자기효능감,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 19
I.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1

IV. 고찰 ····· 23

V. 요약 및 결론 ····· 27

참고문헌 ····· 2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표 목 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 9
Table 2. Health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 10
Table 3. Major related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 12
Table 4. Description of gender stereotype, self-efficacy,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 13
Table 5.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 15
Table 6.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by health behavior ····· 16
Table 7.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by major related characteristics ··· 18
Table 8. Correlations between gender stereotype, self-efficacy,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 20
Table 9. The effects of gender stereotype on academic stress ····· 21
Table 10. The effects of gender stereotype on employment stress ····· 2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ABSTRACT

## The associations between gender-stereotypes and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among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Lee, Yun-Kyung
Advisor : Prof. Han, Mi Ah M.D., Ph.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Objectives:** The numbers of male nurse were steadily increased.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gender stereotypes (GS) on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among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Methods:** Total 414 nursing students (109 male and 305 female) were sampled from two nursing college in Gwangju. Data collected from March 5th to 17th 2015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Descriptive analyses, t-tests,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e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reveal the association between GS and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Results:** Overall GS score was 2.4±0.47. And GS scores of male students (2.6±0.48)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score of female students (2.4±0.45). The average scores of academic stress were similar between male student (2.1±±0.46) and female students (2.2±0.47). The average score of employment stress was similar between female students (2.4±0.49) and male students (2.3±0.52). In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mestic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G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cademic stress in male nursing students (β=0.125, p=0.009). In the case of female students, total GS (β =0.118, p=0.017) and occupational GS (β=0.121, p=0.046)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cademic stress. And occupational G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employment stress in male students (β=0.108, p=0.031). In the case of female students, social GS (β=0.156, p=0.008)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employment stress.

**Conclusions:** G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in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And the association GS and stress were varied by subcategory of GS and sex. Assessment and appropriate management of GS might be helpful to decrease of stress in nursing students.

**Key words:** Academic; Employment; Gender; Gender-identity; Gender stereotypes; Sex; Stress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Ⅰ. 서론

최근 의료수준의 발달 및 건강 개념의 변화에 따라 간호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간호사가 여성에 국한된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흥미나 적성에 따라 남녀 모두 직업으로서 선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An & Chu, 2011). 그리고 최근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함으로 인해 간호직을 선택하는 남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Ahn et al., 2009). 2004년 829명(0.4%)이던 남자 간호사가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5년간 4,074명이 배출되었고, 2012년 우리나라의 등록된 남자 간호사는 5,183명으로 전체 면허 간호사 29만 6.533명 중 1.8%를 차지한다(Lee et al., 2012). 전국 간호대학 재학생 수는 간호학과, 간호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2000년 10,237명에서 2013년 36,24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남학생이 2000년 662명(1.8%)에서 2011년 7,968명(13%)으로 12배 증가하였다(Kim et al., 2014).

이처럼 간호학과에 남학생의 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남자인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온 일부 간호학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질감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고하였다(Kim, 2004). 남학생들은 간호학을 선택한 후 여성 지배적인 교과과정 및 학과 분위기 뿐만 아니라 여학생 중심의 환경으로 인해 성역할에 관련된 심리적 갈등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Lee et al., 2005). 또한 기본간호학 실습과 성인간호학 총론을 공부하게 되면서 남자 간호학생의 경우 긴장감이 있었고, 실습 장소에서 남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하였다(Kim, 2004). 이와 같이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간호사란 여성을 대표하는 직업으로 인식하며, 남성과 여성에서 기대되는 직업이나 성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경향이 남아 있다(Pack et al., 2014).

이처럼 남성이나 여성을 인지 또는 평가할 때 그의 개인적인 특징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생물학적인 사실에 의거해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적, 여성적 특성으로 평가하는 것을 성 고정관념이라고 한다(Lee & Kim, 2003). 성 고정관념은 생물학적과 사회 문화적 차이, 성 역할 정체감 수준을 파악하는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Nam & Kim, 2005; Ahn et al., 2001; Jeon & Yeom, 2014), 성 고정관념의 평균점수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높게 나타났다. 남성성이 강할 경우 사회심리적 성 고정관념이 높았으며, 여성성이 강할 경우 직업 및 외형적 성 고정관념이 높았다(Ahn et al., 2001). 이러한 성 고정관념은 사회문화적 기대를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경직되고 단순화된 시각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Yun et al., 2010)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을 제한하거나, 융통성 없는 반응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활동을 방해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Joo, 2005). 간호분야와 관련해서는 간호직을 수행하는데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Ahn et al., 2009).

기존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생활스트레스 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Yang et al., 2014; Song, 2012), 남자 간호대학생이나 남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성정체감, 학교적응, 직무스트레스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Kim et al., 2014; Pack et al., 2014). 간호대학생들이 당면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학업 성취도 저하 및 의욕상실이 발생되어 간호사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Song, 2012). 따라서 간호 대학생에서 학업이나 진로,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Park et al., 2002), 간호대학생의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이나 취업 스트레스 관련요인을 파악한 연구를 살펴보면, 종교, 간호학 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등이 학업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며(Yang et al., 2014), 연령, 학과성적, 등록금 부담도 등이 취업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었다(Yoo & Shin, 2013). 또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높인다고 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낮은 학생에 비해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을 보여주었다(Pack et al., 2002). 이처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남녀 구분 없이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남녀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녀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실태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성 고정관념의 하부영역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학업 및 취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Ⅱ. 연구방법

## A.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 대상은 G광역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개의 간호학과의 총 학생 수는 신입생을 제외하고 남학생 약 135명, 여학생 약 700명 정도로 2-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5년 3월 5일부터 3월 17까지였으며, 각 대학의 학과장님의 동의를 구한 뒤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가 기입 후 회수하였다. 총 428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설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명을 제외하여 총 414명(남학생 109명, 여학생 30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전 연구진행에 관해 조선대학교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와 승인을 받았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B. 조사변수

### 1. 일반적 특성

성별, 학년(2, 3, 4), 종교(있음, 없음), 부모님과 동거여부, 한 달 평균 용돈(10만원 이하, 11-30만원, 31만원 이상), 가정경제상태(하, 중, 상), 아버지 및 어머니 교육수준(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을 조사하였다.

### 2. 건강행태

평생흡연경험(있음, 없음), 음주빈도(술을 마시지 않는다, 1-2회/주, 3회 이상/주), 운동 상태를 조사하였다. 운동은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30분 이상 주 몇 회하는지 조사한 후, 하지 않는다, 1-2회, 3회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 3. 학교관련 특성

지난 학기 성적(≤3.0, 3.1-3.5, 3.6-4.0, ≥4.1), 임상실습경험(유, 무), 간호(학)과 진학 동기(본인 스스로 선택, 성적에 의해 결정, 가족의 권유, 선생님, 선배, 친구의 권유, 취업의 용이성, 기타), 현재 전공(학과) 재선택 여부(있음, 없음), 진로, 취업 관련 상담프로그램 참여여부(있음, 없음), 졸업 후 희망 취업분야(병원간호사, 전문간호사, 공무원/공단, 보건교사, 대학원 진학, 기타)를 조사하였다.

### 4. 성 고정관념

성 고정관념 측정을 위하여 Kim(1993)이 작성한 총 33문항 5점 척도의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하부영역으로 가정적 성 고정관념 9문항, 사회적 성 고정관념 3문항, 직업적 성 고정관념 5문항, 외형적 성 고정관념 4문항, 심리적 성 고정관념 7문항, 지적 성 고정관념 5문항의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가정적 성 고정관념은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고 여자는 직업을 갖는 것보다 육아나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기는 등의 가정생활에서의 고정관념이며, 사회적 성 고정관념은 정치는 남성의 역할이며 여성은 사회활동보다는 육아나 가사를 돌봐야 한다는 등의 사회활동과 관련된 고정관념이다. 직업적 성 고정관념은 남자는 기관의 장이나 행정직, 여자는 서비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업이나 간호사와 같은 직업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형적 성 고정관념은 남자에 비해 여자는 외모가 중요하고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성 고정관념은 남자는 모험심이 강하고 적극적이며 여자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적 성 고정관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수학적 능력, 창의력 등 다방면에서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1993; An & Chu, 2011). 5점 만점에 부정적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이고, 낮을수록 진보적인 성 고정관념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Kim(199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70-0.83이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0.89이었고 하부영역별 신뢰도는 각각 0.72, 0.67, 0.74, 0.53, 0.71, 0.88이었다.

## 5.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판단이며 얻고자 하는 행동을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감을 의미한다(Kim et al., 2014).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r et al.(1982)이 개발하고 Hong(1995)이 수정 작성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로 총 23문항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의 하부영역으로 구분되어진다. 5점 만점에 부정적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고 자기효능감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가 Cronbach's α=0.86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7이다. 하부영역별 신뢰도는 각각 0.86, 0.70이었다.

## 6.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Schaufeli et al.(2002)에 의해서 개발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척도를 Shin(2012)이 번역하여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총 15문항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 소진, 냉소주의, 효능감 감소 등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만점에 부정적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7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8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7. 취업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측정도구 Jung & No(2001)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Shin (2012)이 수정하여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총 14문항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미취업에 대한 불안, 취업에 대한 자신감 상실,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정서의 3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만점에 부정적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9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6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C.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성 고정관념, 자기효능감,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 각 변수들과 남녀학생간의 차이는 카이제곱검정으로 산출하였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에 따라 성 고정관념의 정도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Jwa, 2014) 성별에 따라 층화분석을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는 t-검정과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성 고정관념, 자기효능감 및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의 관계는 상관분석으로 산출하였다. 성 고정관념과 자기효능감이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규명하기 위해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시 모델 Ⅰ에는 전체 성 고정관념을 투입하였고, 모델 Ⅱ에서는 성 고정관념 하부요인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세부항목인 가정적 성 고정관념, 사회적 성 고정관념, 직업적 성 고정관념, 외형적 성 고정관념, 심리적 성 고정관념, 지적 성 고정관념으로 나누어 투입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Ⅲ. 연구결과

## A. 일반적 특성 분포

총 414명으로 남학생은 109명(26.3%), 여학생이 305명(73.3%)이었다. 연령은 18-24세는 346명(83.6%), 25-29세 44명(10.6%)이며 30세 이상 24명(5.8%)으로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학년은 2학년은 165명(39.9%), 3학년이 153명(37%), 4학년 96명(23.2%)이였으며 학년별 남학생의 분율이 여학생에 비해 2학년 37.5%, 3학년 36.6%, 4학년은 31.5%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 213명(51.4%)이였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240명(58.0%)이었다. 한 달 평균 용돈으로 10만원 미만 사용하는 경우 43명(10.3%), 11-30만원 사용하는 경우는 225명(54.3%), 31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146명(35.3%)이었다. 남학생(58명, 53.2%)과 여학생(167명, 54.8%) 모두 한 달 평균 용돈을 11-30만원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정경제상태는 보통이라고 대답한 경우 236명(57.0%)으로 가장 많았으며 낮음 128명(30.9%), 높음 50명(12.1%)의 순서로 남녀 학생 비슷한 분율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으로는 고졸 181명(43.7%), 대졸 179명(43.2%), 중졸이하 33명(8.30%), 대학원졸 19명(4.6%)이였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으로는 고졸 228명(55.1%), 대졸 134명(32.4%), 중졸이하 32명(7.7%), 대학원졸 18명(4.3%)이었다(Table 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 Variables | Categories | Total (N=414) | Male (N=109) | Female (N=305) | p |
|---|---|---|---|---|---|
| Age(year) | 18-24 | 346(83.6) | 86(78.9) | 260(85.2) | 0.001 |
| | 25-29 | 44(10.6) | 20(18.3) | 24(7.9) | |
| | ≥30 | 24(5.8) | 3(2.8) | 21(6.9) | |
| Grade | 2 | 165(39.9) | 45(41.3) | 120(39.3) | 0.809 |
| | 3 | 153(37.0) | 41(37.6) | 112(36.7) | |
| | 4 | 96(23.2) | 23(21.1) | 73(23.9) | |
| Religion | Yes | 213(51.4) | 52(47.7) | 156(51.1) | 0.463 |
| | No | 201(48.6) | 57(52.3) | 149(48.9) | |
| Living with parents | Yes | 240(58.0) | 60(55.0) | 180(59.0) | 0.251 |
| | No | 174(42.0) | 49(45.0) | 125(41.0) | |
| Average allowance a month (₩10,000) | ≤10 | 43(10.4) | 15(13.8) | 28(9.2) | 0.393 |
| | 11-30 | 225(54.3) | 58(53.2) | 167(54.8) | |
| | ≥31 | 146(35.3) | 36(33.0) | 110(36.1) | |
| Economic status | Low | 128(30.9) | 36(33.0) | 92(30.2) | 0.749 |
| | Middle | 236(57.0) | 59(54.1) | 177(58.0) | |
| | High | 50(12.1) | 14(12.8) | 36(11.8) | |
| Father's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 33(8.0) | 9(8.3) | 24(7.9) | 0.903 |
| | High school | 181(43.7) | 46(42.2) | 135(44.3) | |
| | College | 179(43.2) | 49(45.0) | 30(42.6) | |
| | Graduate school | 19(4.6) | 4(3.7) | 15(4.9) | |
| Mother's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 32(7.7) | 9(8.3) | 23(7.5) | 0.881 |
| | High school | 228(55.1) | 58(53.2) | 170(55.7) | |
| | College | 134(32.4) | 35(32.1) | 99(32.5) | |
| | Graduate school | 18(4.3) | 6(5.5) | 12(3.9) | |

Values are expressed as frequency (%).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B. 건강행태

흡연을 경험한 남학생은 51명(46.8%), 여학생은 11명(3.6%)으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 여학생 162명(53.1%), 1주일에 1-2회 술을 마시는 경우 남학생은 70명(64.2%)으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일주일 동안 땀을 흘릴 정도 30분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 여학생은 210명(68.9%)이며, 1주일에 1-2회 운동을 하는 남학생은 49명(45%), 1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남학생은 27명(24.8%), 여학생은 31명(10.2%)이였으며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Table 2).

Table 2. Health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 Variables | Categories | Total | Male | Female | p |
|---|---|---|---|---|---|
| Lifetimes smoking experience | No | 352(85.0) | 58(53.2) | 294(96.4) | <0.001 |
| | Yes | 62(15.0) | 51(46.8) | 11(3.6) | |
| Drinking frequency | Never | 190(45.9) | 28(25.7) | 162(53.1) | <0.001 |
| | 1-2/week | 201(48.6) | 70(64.2) | 131(43.0) | |
| | ≥3/week | 23(5.6) | 11(10.1) | 12(3.9) | |
| Exercise | Didn't | 243(58.7) | 33(30.3) | 210(68.9) | <0.001 |
| | 1-2/week | 113(27.3) | 49(45.0) | 64(21.0) | |
| | ≥3/week | 58(14.0) | 27(24.8) | 31(10.2) | |

Values are expressed as frequency (%).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C. 학교관련 특성

지난 학기 성적은 3.1-3.5인 경우 남학생은 40명(36.7%), 여학생은 103명(33.8%)이며 3.6-4.0인 경우 남학생 18명(16.5%), 여학생 111명(36.4%)으로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2). 임상실습을 경험한 남학생은 55명(50.5%), 여학생은 142명(46.6%)이었다. 간호(학)과 진학 동기로는 본인 스스로 선택했다는 경우 191명(46.1%), 가족의 권유는 104명(25.1%),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진학한 경우 74명(17.9%), 선생님, 선배, 친구의 권유로 진학한 경우 24명(5.8%), 성적에 의해 결정 21명(5.1%)이었다. 현재 전공(학과) 재선택 하겠다고 대답한 경우 277명(66.9%)이였으며, 진로, 취업 관련 상담프로그램 참가한 적이 없는 경우 299명(72.2%)이었다. 졸업 후 희망 취업분야로는 병원간호사 181명(43.7%), 공무원/공단 85명(20.5%), 전문 간호사 83명(20%), 보건교사 32명(7.7%), 대학원 진학 23명(5.6%), 기타 10명(2.4%)이었고 기타 취업분야로는 모름 5명, 의료선교사, 간호장교, 대한체육회간호사, 의사, 창업 등 각 1명씩 이었다(Table 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3. Major related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 Variables | Categories | Total | Male | Female | p |
|---|---|---|---|---|---|
| Academic score (full mark=4.5) | ≤3.0 | 78(18.8) | 45(41.3) | 47(15.4) | 0.002 |
| | 3.1-3.5 | 144(34.8) | 40(36.7) | 103(33.8) | |
| | 3.6-4.0 | 137(33.1) | 18(16.5) | 111(36.4) | |
| | ≥4.1 | 55(13.3) | 6(.5) | 44(14.4) | |
|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Yes | 197(47.6) | 55(50.5) | 142(46.6) | 0.258 |
| | No | 217(52.4) | 54(49.5) | 163(53.4) | |
| Reasons for major selection | Myself | 191(46.1) | 51(46.8) | 140(45.9) | 0.949 |
| | Correspond to score | 21(5.1) | 5(4.6) | 16(5.2) | |
| | Recommendation of family | 104(25.1) | 25(22.9) | 79(25.9) | |
| | Recommendation of others | 24(5.8) | 7(6.4) | 17(5.6) | |
| | High employment rate | 74(17.9) | 21(19.3) | 53(17.4) | |
| Reselection of major | Yes | 277(66.9) | 73(67.0) | 204(66.9) | 0.540 |
| | No | 137(33.1) | 36(33.0) | 101(33.1) | |
| Participation counseling programs | Yes | 115(27.8) | 34(31.2) | 81(26.6) | 0.188 |
| | No | 299(72.2) | 75(68.8) | 224(73.4) | |
| Future employment fields | Hospital nurse | 181(43.7) | 50(45.9) | 131(43.0) | 0.302 |
| | Advanced practice nurse | 83(20) | 18(16.5) | 65(21.3) | |
| | Official/Corporation | 85(20.5) | 27(24.8) | 58(19.0) | |
| | Health teacher | 32(7.7) | 6(5.5) | 26(8.5) | |
| | Graduate school | 23(5.6) | 4(3.7) | 19(6.2) | |
| | Other | 10(2.4) | 4(3.7) | 6(2.0) | |

Values are expressed as frequency (%).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D. 성 고정관념, 자기효능감,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정도

성 고정관념은 평균평점(5점 만점) 2.4±0.47점이었고, 남학생은 2.6±0.48점, 여학생 2.4±0.45으로 경계역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p=0.093). 하부영역의 평균평점은 외형적 성 고정관념 2.8±0.72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업적 성 고정관념 2.8± 0.60점, 심리적 성 고정관념 2.4±0.61점, 가정적 성 고정관념 2.3±0.61점, 지적 성 고정과념 2.3±0.84점, 사회적 성 고정관념 1.8±0.72점으로 가장 낮았다. 성 고정관념의 하부영역에서 외형적 성 고정관념과 직업적 성 고정관념을 제외하고 남학생의 평균평점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다. 자기효능감은 평균평점(5점 만점) 3.3±0.48점이었고, 하부영역의 평균평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3.4±0.51점, 사회적 자기효능감 3.1±0.53점이었다.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평균평점(4점 만점)은 남학생 2.1± 0.46점, 여학생 2.2±0.47점이며, 취업 스트레스 평균평점(4점 만점)은 남학생 2.3±0.52점, 여학생 2.4±0.49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Table 4).

Table 4. Description of gender stereotype, self-efficacy,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 Variables | Total | Male | Female | p |
|---|---|---|---|---|
| Gender stereotype | 2.4±0.47 | 2.6±0.48 | 2.4±0.45 | 0.093 |
| Domestic | 2.3±0.61 | 2.6±0.67 | 2.2±0.56 | <0.001 |
| Social | 1.8±0.72 | 2.0±0.76 | 1.7±0.69 | 0.021 |
| Occupational | 2.8±0.60 | 2.8±0.59 | 2.8±0.61 | 0.608 |
| Physical | 2.8±0.72 | 2.8±0.73 | 2.8±0.72 | 0.985 |
| Psychological | 2.4±0.61 | 2.5±0.65 | 2.4±0.59 | 0.005 |
| Intellectual | 2.3±0.84 | 2.5±0.84 | 2.2±0.83 | 0.035 |
| Self-efficacy | 3.3±0.48 | 3.4±0.52 | 3.3±0.46 | 0.113 |
| General | 3.4±0.51 | 3.4±0.55 | 3.3±0.49 | 0.849 |
| Social | 3.1±0.53 | 3.1±0.53 | 3.1±0.53 | 0.990 |
| Academic stress | 2.2±0.47 | 2.1±0.46 | 2.2±0.47 | 0.520 |
| Employment stress | 2.4±0.50 | 2.3±0.52 | 2.4±0.49 | 0.748 |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E.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학년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는 2학년은 2.1±0.44점, 3학년은 223±0.45점, 4학년은 2.4±0.5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1$), 종교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는 종교가 있다 2.1±0.45점, 종교가 없다 2.3±0.4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5$).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연령, 학년, 종교 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는 따로 살고 있는 경우 2.5±0.49점, 함께 살고 있는 경우 2.3±0.54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p=0.034$), 연령, 학년, 종교, 한 달 평균 용돈 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의 경우 연령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는 18-24세는 2.4±0.47점, 25-29세는 2.6±0.60점, 30세 이상 2.1±0.6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9$), 학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는 2학년은 2.3±0.50점, 3학년은 2.3±0.44점, 4학년은 2.5±0.5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5$). 종교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는 종교가 있다 2.3±0.44점, 종교가 없다 2.4±0.5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9$) (Table 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5.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 Variables | Categories | Academic stress | | | | Employment stress | | | |
|---|---|---|---|---|---|---|---|---|---|
| | | Male | p | Female | p | Male | p | Female | p |
| Age | 18-24 | 2.2±0.46 | 0.149 | 2.2±0.47 | 0.087 | 2.3±0.52 | 0.839 | 2.4±0.47 | 0.009 |
| | 25-29 | 2.4±0.57 | | 2.3±0.42 | | 2.4±0.59 | | 2.6±0.60 | |
| | ≥30 | 2.1±0.20 | | 2.0±0.48 | | 2.3±0.21 | | 2.1±0.60 | |
| Grade | 2 | 2.1±0.41 | 0.291 | 2.1±0.44 | <0.001 | 2.3±0.47 | 0.314 | 2.3±0.50 | 0.005 |
| | 3 | 2.2±0.48 | | 2.2±0.45 | | 2.4±0.56 | | 2.3±0.44 | |
| | 4 | 2.3±0.61 | | 2.4±0.50 | | 2.5±0.56 | | 2.5±0.52 | |
| Religion | Yes | 2.2±0.51 | 0.444 | 2.1±0.45 | 0.005 | 2.4±0.53 | 0.895 | 2.3±0.44 | 0.039 |
| | No | 2.2±0.46 | | 2.3±0.48 | | 2.3±0.53 | | 2.4±0.54 | |
| Living with parents | Yes | 2.2±0.51 | 0.232 | 2.2±0.44 | 0.109 | 2.3±0.54 | 0.034 | 2.3±0.46 | 0.531 |
| | No | 2.3±0.47 | | 2.3±0.51 | | 2.5±0.49 | | 2.4±0.54 | |
| Average allowance a month (₩10,000) | ≤10 | 2.0±0.47 | 0.095 | 2.3±0.64 | 0.708 | 2.2±0.52 | 0.571 | 2.4±0.52 | 0.633 |
| | 11-30 | 2.3±0.45 | | 2.2±0.44 | | 2.4±0.46 | | 2.4±0.48 | |
| | ≥31 | 2.2±0.52 | | 2.2±0.46 | | 2.4±0.62 | | 2.3±0.51 | |
| Economic status | Low | 2.2±0.52 | 0.916 | 2.3±0.47 | 0.369 | 2.2±0.58 | 0.054 | 2.4±0.47 | 0.118 |
| | Middle | 2.2±0.46 | | 2.2±0.46 | | 2.4±0.43 | | 2.3±0.50 | |
| | High | 2.3±0.52 | | 2.1±0.50 | | 2.1±0.68 | | 2.2±0.50 | |
| Father's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 2.4±0.67 | 0.457 | 2.1±0.52 | 0.273 | 2.4±0.55 | 0.364 | 2.2±0.66 | 0.383 |
| | High school | 2.2±0.49 | | 2.3±0.45 | | 2.4±0.46 | | 2.4±0.49 | |
| | College | 2.1±0.45 | | 2.2±0.47 | | 2.3±0.57 | | 2.4±0.46 | |
| | Graduate school | 2.4±0.35 | | 2.0±0.52 | | 2.2±0.29 | | 2.4±0.53 | |
| Mother's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 2.3±0.30 | 0.837 | 2.2±0.52 | 0.722 | 2.4±0.58 | 0.454 | 2.2±0.43 | 0.626 |
| | High school | 2.2±0.53 | | 2.3±0.46 | | 2.3±0.47 | | 2.4±0.49 | |
| | College | 2.1±0.48 | | 2.2±0.47 | | 2.4±0.61 | | 2.3±0.47 | |
| | Graduate school | 2.3±0.35 | | 2.2±0.61 | | 2.4±0.37 | | 2.5±0.41 | |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F. 건강행태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평생흡연경험, 음주빈도, 운동 상태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는 남녀 학생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운동 상태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는 여학생인 경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남학생의 경우 하지 않는다 2.5±0.50점, 1주일에 1-2회 운동을 하는 경우 2.2±0.51점, 1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 2.4±0.54점(p=0.04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평생흡연경험, 음주빈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는 남녀 학생 각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Table 6.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by health behavior

| Variables | Categories | Academic stress | | | | Employment stress | | | |
|---|---|---|---|---|---|---|---|---|---|
| | | Male | p | Female | p | Male | p | Female | p |
| Lifetimes smoking experience | No | 2.2±0.47 | 0.958 | 2.2±0.47 | 0.264 | 2.4±0.56 | 0.405 | 2.4±0.50 | 0.222 |
| | Yes | 2.2±0.50 | | 2.1±0.57 | | 2.3±0.48 | | 2.2±0.35 | |
| Drinking frequency | Never | 2.3±0.57 | 0.355 | 2.2±0.46 | 0.059 | 2.3±0.59 | 0.441 | 2.4±0.51 | 0.268 |
| | 1-2/week | 2.2±0.46 | | 2.2±0.46 | | 2.4±0.50 | | 2.3±0.48 | |
| | ≥3/week | 2.1±0.40 | | 2.5±0.64 | | 2.2±0.54 | | 2.6±0.44 | |
| Exercise | Didn't | 2.3±0.58 | 0.562 | 2.2±0.47 | 0.247 | 2.5±0.50 | 0.047 | 2.4±0.50 | 0.204 |
| | 1-2/week | 2.2±0.41 | | 2.1±0.50 | | 2.2±0.51 | | 2.3±0.49 | |
| | ≥3/week | 2.1±0.48 | | 2.2±0.44 | | 2.4±0.54 | | 2.5±0.42 | |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G.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남학생의 경우 지난 학기 성적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는 3.0 이하 2.2±0.41점, 3.1-3.5는 2.2±0.48점, 3.6-4.0은 2.3±0.43점, 4.1 이상은 2.1±0.4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689). 여학생의 경우 지난 학기 성적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는 3.0 이하는 2.4±0.44점, 3.1-3.5는 2.3±0.47점, 3.6-4.0은 2.1±0.46점, 4.1 이상은 2.1±0.4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1), 임상실습경험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는 실습을 경험한 경우 2.3±0.47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2). 간호(학) 진학 동기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는 성적에 의해 선택 2.5±0.57점, 취업의 용이성 2.3±0.47점, 가족의 권유 2.3±0.45점, 선생님, 선배, 친구의 권유 2.2±0.44점, 스스로 선택 2.1±0.4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2). 현재 전공(학과) 재선택 여부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는 있음이라고 대답한 경우 2.5±0.4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졸업 후 희망 취업 분야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는 병원 간호사 2.2± 0.47점, 공무원/공단 2.4±0.50점, 보건교사 2.2±0.44점, 대학원진학 2.0±0.36, 기타 2.4±0.2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05), 진로, 취업 관련 상담프로그램에 참가유무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학생의 경우 현재 전공(학과) 재선택 여부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는 있음이라고 대답한 경우 2.5±0.60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33). 졸업 후 희망 취업 분야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는 전문간호사 2.5±0.37점, 공무원/공단 2.5±0.60점, 기타 2.6±0.6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9). 여학생의 경우 임상실습경험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는 실습을 경험한 경우 2.4±0.4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20), 현재 전공(학과) 재선택 여부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는 있음이라고 대답한 경우 2.5±0.5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Table 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7.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by major related characteristics

| Variables | Categories | Academic stress | | | | Employment stress | | | |
|---|---|---|---|---|---|---|---|---|---|
| | | Male | p | Female | p | Male | p | Female | p |
| Academic score (full mark=4.5) | ≤3.0 | 2.2±0.41 | 0.689 | 2.4±0.44 | 0.001 | 2.3±0.54 | 0.141 | 2.5±0.42 | 0.235 |
| | 3.1-3.5 | 2.2±0.48 | | 2.3±0.47 | | 2.5±0.46 | | 2.4±0.44 | |
| | 3.6-4.0 | 2.3±0.43 | | 2.1±0.46 | | 2.1±0.60 | | 2.3±0.60 | |
| | ≥4.1 | 2.1±0.45 | | 2.1±0.45 | | 2.4±0.37 | | 2.3±0.60 | |
|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Yes | 2.2±0.52 | 0.722 | 2.3±0.47 | <0.001 | 2.3±0.56 | 0.947 | 2.4±0.48 | 0.020 |
| | No | 2.2±0.45 | | 2.1±0.45 | | 2.3±0.50 | | 2.3±0.50 | |
| Reasons for major selection | Myself | 2.2±0.48 | 0.549 | 2.1±0.45 | 0.002 | 2.3±0.53 | 0.713 | 2.3±0.52 | 0.250 |
| | Correspond to score | 1.9±0.47 | | 2.5±0.57 | | 2.3±0.31 | | 2.6±0.47 | |
| | Recommendation of family | 2.2±0.44 | | 2.3±0.45 | | 2.5±0.51 | | 2.4±0.41 | |
| | Recommendation of others | 2.2±0.50 | | 2.2±0.44 | | 2.4±0.46 | | 2.3±0.50 | |
| | High employment rate | 2.3±0.56 | | 2.3±0.47 | | 2.4±0.60 | | 2.4±0.52 | |
| Reselection of major | Yes | 2.2±0.50 | 0.504 | 2.1±0.42 | <0.001 | 2.3±0.47 | 0.033 | 2.3±0.47 | 0.001 |
| | No | 2.2±0.45 | | 2.5±0.46 | | 2.5±0.60 | | 2.5±0.52 | |
| Participation counseling programs | Yes | 2.2±0.44 | 0.940 | 2.1±0.45 | 0.076 | 2.4±0.60 | 0.817 | 2.4±0.47 | 0.930 |
| | No | 2.2±0.50 | | 2.3±0.47 | | 2.3±0.49 | | 2.4±0.50 | |
| Future employment fields | Hospital nurse | 2.2±0.45 | 0.878 | 2.2±0.47 | 0.005 | 2.3±0.47 | 0.009 | 2.4±0.49 | 0.451 |
| | Advanced practice nurse | 2.2±0.54 | | 2.1±0.46 | | 2.5±0.37 | | 2.3±0.50 | |
| | Official/Corporation | 2.2±0.49 | | 2.4±0.50 | | 2.5±0.60 | | 2.4±0.47 | |
| | Health teacher | 2.4±0.39 | | 2.2±0.44 | | 1.9±0.57 | | 2.3±0.57 | |
| | Graduate school | 2.2±0.80 | | 2.0±0.36 | | 1.8±0.44 | | 2.2±0.46 | |
| | Other | 2.0±0.56 | | 2.4±0.26 | | 2.6±0.63 | | 2.4±0.58 | |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H. 성 고정관념, 자기효능감,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성 고정관념과 학업 스트레스의 상관계수는 남학생의 경우 r=0.293(p=0.002), 여학생의 경우 r=0.182(p=0.001)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 고정관념의 하위영역에서 남학생의 경우 가정적 성 고정관념 r=0.406(p=<0.001), 사회적 성 고정관념 r=0.384(p=<0.001), 직업적 성 고정관념 r=0.272(p=0.004), 여학생의 경우 가정적 성 고정관념(r=0.164, p=0.004), 사회적 성 고정관념(r=0.145, p=0.011), 직업적 성 고정관념(r=0.192, p=0.001)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업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계수는 남학생의 경우 r=-0.571(p=<0.001), 여학생의 경우 r=-0.449(p<0.001)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 고정관념과 취업 스트레스의 상관계수는 남학생 r=0.261(p=0.006), 여학생 r=0.165(p=0.004)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업 스트레스와 취업 스트레스의 상관계수 남학생은 r=0.636(p<0.001), 여학생 r=0.437(p=<0.001)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 고정관념의 하위영역에서 남학생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에서는 가정적 성 고정관념(r=0.281, p=0.003), 사회적 성 고정관념(r=0.256, p=0.007), 직업적 성 고정관념(r=0.302, p=0.001)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에서는 가정적 성 고정관념(r=0.133, p=0.021), 사회적 성 고정관념(r=0.224, p<0.001), 직업적 성 고정관념(r=0.180, p=0.001)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취업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계수는 남학생의 경우 r=-0.501(p<0.001), 여학생의 경우 r=-0.406(p<0.001)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8. Correlations between gender stereotype, self-efficacy,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 Variables | Academic stress | | Employment stress | |
|---|---|---|---|---|
| | Male | Female | Male | Female |
| Gender stereotype | 0.293(0.002) | 0.182(0.001) | 0.261(0.006) | 0.165(0.004) |
| Domestic | 0.406(<0.001) | 0.164(0.004) | 0.281(0.003) | 0.133(0.021) |
| Social | 0.384(<0.001) | 0.145(0.011) | 0.256(0.007) | 0.224(<0.001) |
| Occupational | 0.272(0.004) | 0.192(0.001) | 0.302(0.001) | 0.180(0.002) |
| Physical | 0.043(0.661) | 0.106(0.064) | 0.009(0.930) | 0.073(0.202) |
| Psychological | 0.148(0.125) | 0.078(0.174) | 0.135(0.162) | 0.067(0.243) |
| Intellectual | -0.065(0.503) | 0.095(0.099) | 0.070(0.468) | 0.073(0.202) |
| Self-efficacy | -0.571(<0.001) | -0.449(<0.001) | -0.501(<0.001) | -0.406(<0.001) |
| General | -0.585(<0.001) | -0.458(<0.001) | -0.483(<0.001) | -0.388(<0.001) |
| Social | -0.442(<0.001) | -0.263(<0.001) | -0.421(<0.001) | -0.285(<0.001) |
| Academic stress | | | 0.636(<0.001) | 0.437(<0.001) |

Data are expressed as correlation coefficient(p-valu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I.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 고정관념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델 Ⅰ과 성 고정관념 하부영역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델 Ⅱ로 분석하였다.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남학생의 경우 하부영역별 성 고정관념 중 가정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β=0.125, p=0.009). 여학생의 경우 전체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으며(β=0.118, p=0.017), 하부영역별 성 고정관념 중 직업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β=0.121, p=0.046) (Table 9).

Table 9. The effects of gender stereotype on academic stress

| | Gender stereotype | Male[a] | | Female[b] | |
|---|---|---|---|---|---|
| | | β (SE) | p | β (SE) | p |
| Model Ⅰ | Total | 0.063(0.044) | 0.153 | 0.118(0.049) | 0.017 |
| Model Ⅱ | Domestic | 0.125(0.037) | 0.009 | 0.069(0.049) | 0.232 |
| | Social | 0.035(0.025) | 0.413 | 0.009(0.037) | 0.872 |
| | Occupational | 0.031(0.039) | 0.545 | 0.121(0.038) | 0.046 |
| | Physical | 0.018(0.034) | 0.733 | -0.025(0.037) | 0.662 |
| | Psychological | -0.069(0.050) | 0.291 | -0.052(0.056) | 0.461 |
| | Intellectual | -0.008(0.034) | 0.891 | 0.049(0.039) | 0.475 |

[a]adjusted variable: self-efficacy

[b]adjusted variable: grade, religion, academic score,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reasons for major selection, reselection major, hope employment and self-efficacy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남학생의 경우 하부영역별 성 고정관념 중 직업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β=0.108, p=0.031),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β=0.156, p=0.008) (Table 10).

Table 10. The effects of gender stereotype on employment stress

| | Gender stereotype | Male[a] | | Female[b] | |
|---|---|---|---|---|---|
| | | β (SE) | p | β (SE) | p |
| Model Ⅰ | Total | 0.049(0.047) | 0.262 | 0.074(0.055) | 0.162 |
| Model Ⅱ | Domestic | 0.049(0.039) | 0.307 | -0.036(0.054) | 0.559 |
| | Social | -0.027(0.030) | 0.533 | 0.156(0.041) | 0.008 |
| | Occupational | 0.108(0.041) | 0.031 | 0.087(0.043) | 0.180 |
| | Physical | -0.073(0.036) | 0.153 | 0.012(0.042) | 0.838 |
| | Psychological | -0.072(0.053) | 0.266 | -0.073(0.063) | 0.333 |
| | Intellectual | 0.064(0.036) | 0.291 | 0.017(0.043) | 0.816 |

[a]adjusted variable: living with parents, exercise, re-selection major, hope employment, academic stress and self-efficacy

[b]adjusted variable: age, grade, religion,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re-selection major, academic stress and self-efficacy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IV. 고찰

본 연구는 일부 간호학과 대학생으로 성 고정관념이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남학생의 경우 가정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직업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 직업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사회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았다.

성 고정관념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남학생 2.6점, 여학생 2.4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아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성 고정관념에 대해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한 연구에서 남학생 3.12점, 여학생 2.73점이었으며(Nam & Kim, 2005), Ahn et al.(2001)의 연구에서도 남학생 3.09점, 여학생 2.48점으로 일반대학생이 간호대학생보다 성 고정관념 점수가 높았다. 간호대학생들이 일반대학생에 비해 성 고정관념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여성 중심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분야를 선택한 남성이 다른 전공을 선택한 남성보다 성 고정관념이 낮으며, 성 구분을 초월하여 직업을 선택하려는 결과라고 판단된다(Pack & Lee, 2009).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Nam & Kim, 2005)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였다(Lee & Kim, 2003).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특권과 위신을 정당화 시키는 기능을 하며 여학생의 경우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여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Jwa, 2014).

성 고정관념의 하부 영역 중 외형적 성 고정관념이 남녀 학생 모두 2.8점으로 가장 높아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Pack & Lee, 2009; Lee, 2004)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다른 하위영역의 성 고정관념에 비해 외형적 성 고정관념이 더 높았다(Lee & Kim, 2003). 이는 간호학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서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풍토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Jo & Bang, 2003). 사회적 성 고정관념이 남학생 2.0점, 여학생 1.7점으로 다른 성 고정관념의 하부영역 평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균점수에 비해 낮아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Lee & Kim, 2003)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성 고정관념이 가장 낮았다(An & Chu, 2011). 이는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되고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일련의 제도적인 변화 속에서 여성이나 남성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Kim, 2008).

학업 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남학생 2.1점, 여학생 2.2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 & Shin(2013)의 연구에서의 학업 스트레스 남학생 2.21점, 여학생 2.25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했다.

성 고정관념과 학업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가정적 성 고정관념이 증가할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β=0.125, p=0.009). 여학생의 경우 전체 성 고정관념이 증가할수록(β=0.118, p=0.017), 직업적 성 고정관념이 증가할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β=0.121, p=0.046). 선행연구에서 성 고정관념은 학업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자기개념(self-concept)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성 고정관념이 높을 경우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한정적으로 생각하여 학업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개념은 신체적, 사회적, 감정적인 개념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짓는 가를 의미하여, 성 고정관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기개념은 사회적, 심리적인 성숙과 학업적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Igbo et al., 2015). 남자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업과 실습환경에서 성에 대한 인식 및 고정관념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였고(Jung & Pack, 2011), 본 연구에서 남학생은 생계를 책임지고 장래에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낄수록, 여학생의 경우 성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학업 스트레스가 높았다.

취업 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남학생 2.3점, 여학생 2.4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 & Shin(2013)의 연구에서의 취업 스트레스 남학생 2.40점, 여학생 2.47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성 고정관념과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직업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β=0.316, p=0.031),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증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하여(β=0.156, p=0.008), 성 고정관념의 하부 영역 중 직업이나 사회적인 역할과 관련된 고정관념이 취업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었다. 성 고정관념이 높을 경우 직업의 선택에 있어 제한된 폭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으로(Igbo et al., 2015), 남학생의 경우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직업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학생의 경우 취업이나 사회적 역할은 남성의 몫이고 가정 내의 역할과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았다.

일반적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학년, 종교, 임상실습 경험, 간호학과 진학 동기 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간호학과의 경우 전공과목 학업 이외에 임상실습에 관한 추가적인 교육이나 과제 등이 더 많아져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고 하였다(Yang et al., 2014). 취업 스트레스는 남학생의 경우 부모님과 동거여부, 졸업 후 희망취업 분야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연령, 학년, 임상실습 경험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졸업 후 희망취업 분야에서 공단이나 공무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Pack et al.(2002)의 연구에서 보건소를 희망하는 경우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임상실습을 경험한 경우 취업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이는 이론과 실제 임상환경의 차이, 실습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Cho, 2005).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남녀 간호대학생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이 성에 따른 역할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를 평가하였는데, 이는 간호사나 간호학생에 대한 보호자, 병원의 분위기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Jeon & Yeom, 2014) 향후 간호대학생이 생활하는 지역사회나 학교, 병원 등에서의 성 고정관념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자면, 간호학 분야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남자 간호학생을 포함해 남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를 파악함으로써 남녀 간호대학생들이 성역할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파악한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결론적으로 남녀 간호대학생에서 성 고정관념은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성 고정관념의 하부 영역에 따라 다양했다. 성 고정관념은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잘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Kim & Min, 2006). 간호대학생의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는 의욕상실, 학업 성취도 저하, 학업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방안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부 간호학과 대학생으로 성 고정관념이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G광역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의 신입생을 제외하고 2-4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2015년 3월 5일부터 3월 17까지였다. 총 428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14명을 제외하여 총 414명(남학생 109명, 여학생 30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기술통계, 층화분석, t-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성 고정관념과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성 고정관념은 평균평점(5점 만점) 남학생은 2.6±0.48점, 여학생의 2.4± 0.45점으로 경계역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p=0.093). 학업 스트레스 평균평점(4점 만점)은 남학생 2.1±0.46점, 여학생 2.2±0.47점, 취업 스트레스 평균평점(4점 만점)은 남학생 2.3±0.52점, 여학생 2.4±0.49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남녀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가정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β=0.125, p=0.009). 여학생의 경우 전체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도 증가하며(β=0.118, p=0.017), 직업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β=0.121, p=0.046).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직업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β=0.108, p=0.031),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β=0.156, p=0.008).

결과적으로 남녀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었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과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평가와 관리가 이뤄진다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참고 문헌

An ES, Chu SK. Study on male nurses' gender stereotype and job satisfaction. J Korean Acad Nurs Adm, 2011;17(1):14-21.

Ahn KH, Seo JM, Hwang SK. Content analysis of male hospital nurses' experiences. Korean J Adult Nurs, 2009;21(6):652-665.

Ahn ES, Lee KJ, Kim EH. Sex-role and sex stereotype in the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Women's Culture, 2001;8(0):27-50.

Cho YH.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 by the grade of stress in the nursing students - effect of national examination on stress.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05;19(1):64-73.

Hong HY.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995.

Igbo JN, Onu VC, Obiyo NO. Impact of Gender Stereotype on Secondary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SEGA Open, 2015;5(1):1-10.

Jung ES., No AY. The study is students of the relationship among employment stress, depression, self-efficacy and physical health. Student Life Research, 2001;33:85-101.

Jeon HO, Yeom EY.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s,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mong male nursing students.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2):796-807.

Jwa HS.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moderating effect of gender role stereotyp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4;34(2):334-366.

Jo HJ, Bang HJ. Effects of gender-stereotype on explicit and implicit self-construals of korean women. Korean J Woman Psych, 2003;8(3):101-122.

Joo HJ. Effects of gender stereotype on the evaluation of women managers. Woman Studies Review, 2005;22(1):15-14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Jung OB, Park HJ. Experience on delivery room practice of male nursing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1;17(1):64-76.

Kim D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stereotypes and authoritarianism. Social Science Review, 1993;63(2):45-56.

Kim M, Cho SH, Jeon KS. Barriers and strategies to adaptation among Korean male nursing students : a systematic review. Korean J Str Res, 2014;22(3):109-119.

Kim MH. A study of male students' experience majoring in nursing.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04;10(2):183-193.

Kim KH, Min HY. Relationships of employment commitment and sex stereotypes to coping behavior of female students concerning job-searching problems - compared to mal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06;13(2):167-186.

Kim SJ. A study on gender differences of gender-role stereotype among youth. Korea Ass Soc Welfare Studies, 2008;36(0):129-149.

Lee DJ.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4.

Lee KE, Kim NS. The effect of sexuality course on sex-role stereotypes and sexual attitude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3;9(1):5-17.

Lee JS, Kim NJ, Doo HJ, An JH, Lee YK.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students in department of nursing.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2005;14(2):159-169.

Lee JH, Jang EY, Lee SM. The predictors of adaptation to college among nursing students and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2012;37(2):12-24.

Nam SH, Kim MA. The study on the gender role identity & sex stereotype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Adult Nurs, 2005;17(4):561-572.

Park HS, Bea YJ, Jung SY.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2002;11(4):621-631.

Pack JM, Lee SJ. Comparison of gender stereotype between female nursing students and humanities students.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09;20(4):412-420.

Pack HS, Ha JH, Lee MH. The relationship among gender-role identity, gender stereotyp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male nurs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5): 2962-2970.

Schaufeli WB, Martinez IM, Pinto AM, Salanova M, Bakker AB.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e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02;33(5):464-481.

Sherer M, Maddux JE, Mercandante B, Prenice-Dunn S, Jacobs B. & Rogers RW.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c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1982;51:663-671.

Shin DW. Effects of the perceptions of parents' expectations for the future careers of children on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2012;17(1) :3-22

Song YS. Stressful life events and quality of lif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2;18(1):71-80.

Yang YK, Han KS, Bea MH, Yang SH.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Korean J Str Res, 2014;22(1):23-24.

Yoo KS, Shin DW.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s on academic burnout and employment stres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3;14(6):3849-3869.

Yun MH, Shin HS, Seo HJ. A study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about vocat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10;29(4) :305-327.